Symphony No. 6 in D minor, Op. 104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6 in D minor, Op. 104 작곡가: Jean Sibelius (1865–1957)
장르: 교향곡
작곡 시기: 1914–1923년
초연: 1923년 2월 19일, Helsinki, 작곡가 지휘
범위: 네 악장 전곡

IMSLP: Symphony No. 6, Op. 104

Wikipedia: Symphony No. 6 (Sibelius)

Jean Sibelius의 Symphony No. 6 in D minor, Op. 104는 1914년 무렵의 스케치에서 출발해 1923년에 완성된 교향곡이다 . 이 글은 전곡을 다루며, 작품은 Allegro molto moderato, Allegretto moderato, Poco vivace, Allegro molto 순서의 네 악장으로 이어진다.

출판 정보와 작곡 과정

1923년 Stockholm의 Abraham Hirsch's Forlag에서 초판이 나왔고, 이후 Wilhelm Hansen 계열로
재인쇄되었다 . 오늘날 대여되는 Edition Wilhelm Hansen의 Jean Sibelius Works(JSW) 비평판은 자필
원고와 초판을 비롯한 1차 자료를 대조해 만든 판본이다. 따라서 역사적 초판과 JSW 연주판은 같은 작품을 바탕으로 하지만 편집 단계가 다르다.

제 6번의 재료는 제 5번과 제 7번, 한때 구상했던 제 2바이올린 협주곡과 함께 이동했다. UK Sibelius Society가 소개한 1916년 일기에는 제 6번 작업이 명시되어 있고, 1923년 1월에는 세 악장이 완성되었고 피날레 작업이 남아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긴 작곡 과정 때문에 초기 스케치 한 장을 특정 악장의 확정 원고로
단정하기보다는 , 여러 작품의 구상이 겹친 뒤 1922년 말부터 제 6번의 형태가 굳었다고 보는 편이 자료에 맞는다.

작품명에 붙은 ‘D단조 ’는 통용되는 목록 명칭이다. BIS의 판본 해설에 따르면 총보 표지에는 조성이 적혀 있지 않고 제 1·3·4악장 첫 페이지에도 조표가 없다. 이 표기와 별개로 D를 중심으로 한 Dorian 선법의 음계가
선율과 화성의 색채를 결정한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27분이다. Wise Music Classical과 Konserthuset Stockholm이 이 시간을 제시하며, 지휘자의 호흡과 공연장의 조건에 따라 30분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편성

목관악기 :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금관악기 :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타악기와 기타: 팀파니, 하프
현악기: 현악 5부

이 편성에서 베이스 클라리넷과 하프는 목관과 현악 사이의 음색을 넓히고, 금관은 19세기 후반 교향곡에서
흔한 지속적 총주보다 제한된 지점에 배치된다. 선율을 여러 성부가 나누어 이어 가는 악장 구성과 맞물려, 악기의 수보다 각 성부의 선명한 결합이 전체 질감을 결정한다.

네 악장의 진행

I. Allegro molto moderato

제 1악장은 조용한 현악 다성으로 시작하고 오보에의 상승 선율이 뒤따른다. 선율은 일정한 박동 위에서 조금씩 길어지며, 큰 화성 충돌보다 성부가 서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형식이 드러난다. 금관은 이 흐름을 한꺼번에 덮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윤곽을 보탠다.

II. Allegretto moderato

제 2악장은 네 악장 가운데 느린 성격을 맡는다. BIS booklet은 마디선이 고정된 행진처럼 느껴지지 않는 자유로운 리듬을 이 악장의 특징으로 설명한다. 현악과 목관이 짧은 선율을 교환하면서 제 1악장의 투명한
출발과 다른, 더 느슨한 시간 감각을 만든다.

III. Poco vivace

제 3악장은 짧은 스케르초다 . 트로키 성격의 박동과 빠르게 움직이는 현악, 목관의 짧은 응답이 앞선 악장들의 긴 선율에 탄력을 더한다. 길이는 짧지만 피날레로 넘어가기 전에 교향곡의 운동량을 분명하게 바꾸는 위치에 놓인다.

IV. Allegro molto – Allegro assai – Doppio più lento

피날레는 상성부의 목관 ·현악과 저음 현악이 주고받는 대목에서 출발한다. 구절의 대칭이 흔들리며 움직임이 격해지고, 절정 뒤에는 코랄풍의 주제가 나타나면서 속도가 느려진다. 마지막 Doppio più lento는 승리의 종결 대신 소리가 가라앉는 시간을 마련해, 앞선 악장들의 선율 재료를 조용히 정리한다.

선법과 작곡가의 설명

D를 중심으로 한 선법적 음계는 제 6번의 악장들을 연결하는 공통 재료다. 1948년 Sibelius의 메모를 소개한 UK Sibelius Society는 그가 작곡 당시 Dorian mode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고 전한다. 이 발언은 작품을 D단조라는 통용 명칭과 대립시키기보다 , 총보의 무조표적 표기와 실제 선율의 중심을 함께 살펴보게 한다.

초연 뒤 Sibelius가 William Seymer에게 작품이 화성보다 선율선에 바탕을 둔 ‘tranquil’한 교향곡이며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보다 자유롭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BIS booklet에 실려 있다. 이 말은 악장별 표제를 대신하는 해설이 아니라, 작곡가가 1923년 초연 직후 자신의 선율 중심적 구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다. 각 악장에서 현악과 목관의 선율이 이어지고 형식의 방향을 정하는 이유도 이 설명과 연결된다.

초연과 초기 수용

Sibelius는 1923년 2월 19일 Helsinki에서 작품을 직접 지휘했다. 당시 공연의 오케스트라는 기관의 역사적 명칭이 자료마다 Helsinki City Orchestra 또는 Helsinki Philharmonic Orchestra로 다르게 적히므로, 초연 장소와 작곡가 지휘라는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Helsingin kaupunginorkesteri의 역사 자료는 초연 당일 다른 소품이 함께 연주된 프로그램도 전한다. 이 교향곡의 첫 연주와 콘서트 전체의
구성을 구분하면 초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초연 직후의 기록은 작품의 맑은 음색과 절제된 오케스트레이션을 주목했다.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연구 요약에는 기자가 작품을 설명할 표어를 요청하자 Sibelius가 “When shadows lengthen”이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나온다. 이 문구는 공식 부제가 아니라 초연 직후 질문에 대한 즉석 응답으로 기록되며, 작품의 제목이나 네 악장의 순서를 바꾸지는 않는다.

주요 자료

Jean Sibelius, Symphony no. 6, Op. 104 — Wise Music Classical와 Edition Wilhelm Hansen.
JSW 비평판의 근거, 편성, 공식 연주 시간을 확인했다.
Symphony No. 6 in D minor — UK Sibelius Society Journal 비평판 해설. 작곡 일기, 1948년
Dorian mode 회고, 초연 전후의 자료를 대조했다.
Edition Sibelius booklet — BIS. 작곡 과정, 악장별 음악적 특징, William Seymer에게 한 설명, Stenhammar 헌정 표기를 확인했다.
Symphony No. 6, Valse chevaleresque, Suite caractéristique, Suite champêtre — Helsingin kaupunginorkesteri 역사 자료. 1923년 Helsinki 초연과 당일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Symphony No. 6 — Konserthuset Stockholm. 네 악장 표기, 약 27분, 초연 이후 Stockholm 공연을 대조했다.
Symphony No. 6, Op. 104 — Hal Leonard, Edition Wilhelm Hansen 악보 안내. 1923년 완성과 출판 계열 정보를 확인했다.
Sibelius: Symphony No. 6 in D minor, Op. 104 —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연구 요약. “When shadows lengthen” 일화의 자료 성격을 확인했다.